창업은 교육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이상헌의 창업 칼럼

최근 비대면 강의에서 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최근 창업과 경영 등과 관련한 강의가 늘어났다. 새터민부터 교정기관이라 불리는 교도소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 많은 것을 알려주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몇 번씩 만나는 수강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창업 강의에 중독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며칠 전 모 박람회에서 만난 박모씨가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수강생이다. 강의만 열 번 이상은 들은 듯한 박씨는 창업 준비만 벌써 오 년째다. 계속 준비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이 지연되는 등 이유로 창업을 실행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박씨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훌륭한 반면에 성공을 위한 창업 준비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면 안 되는데'라며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박씨와 같은 목숨형 창업은 조심과 점검은 기본이지만, 자신과의 승부가 먼저다. 일명 '대박 가게'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운영자 자신이 바로 최고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이다. 아이템 및 입지 분석, 경쟁점 현황 공부, 창업 자금 마련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창업자 스스로 최고의 상품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창업 관련된 교육을 무리하게 수강한 창업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그에 따른 도피의 수단을 강구한다.

이럴 때 창업은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임을 인지해야 한다.

요즘 창업 강의는 성공 창업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주로 진행하고 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허상을 잘 알기에 가급적 '실패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어려운 창업 환경과 경기 환경 탓에 예비 창업자들도 자영업자들도 힘들어 한다.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천운이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상황의 심각한 저점 현상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과 함께 에그플레이션(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 레이스다. 시간대별 매출이 다르듯이 요일별, 월별, 계절별, 매출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일희일비(一喜一悲)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 게 창업이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러할 때이다. 도전하지 않고는 열매를 딸 수 없다. 노력과 열정 끈기, 그리고 실행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오늘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고물가시대가 부른 탄소중립 활동

기자 수첩

김서현
(유통&라이프부)

6.0%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에 유통가가 연일 할인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식자재를 주요 상품으로 다루고 가격 경쟁력을 중요시하는 마트업계와 온라인 장보기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이맘때 보복 소비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쏠아졌던 희귀·상등품 과일과 고가의 양주는 쏙 들어갔다. 가격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PB 브랜드들이 쑥 성장했고 각 기업은 아예 물가 모니터링 팀까지 꾸렸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할인전을 펼치는 데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판매하려는 소비자들과 기업이 마주하면서 못난이 과일, 리퍼·이월상품, 중고거래 등이 활발해졌다.

과거 못난이 과일은 생산지에서 가공식품의 재료로 직행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됐다. '상생 과일' 시리즈로 못난이 과일을 정식 상품으로 내놓은 롯데마트는 해당 시리즈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 이번 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매출이 전년 동기의 180%를 넘었다.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단지 모양이나 크기가 납품 기준에 못 미쳐 폐기 되거나 공장으로 갔던 못난이 과일들이 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리자 농가에도 이득이 됐다.

리퍼·이월상품도 카테고리가 확대됐다. 주로 리퍼·이월상품은 전자제품이나 의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공식품 영역까지 넓어졌고 큰 인기를 끌게 됐다. 티몬이 운영 중인 리퍼·이월상품 전문 기획관인 '알뜰쇼핑'은 리뉴얼을 단행한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279% 상승했다. 식품의 경우 307%까지 매출이 치솟았다.

중고거래 문화가 정착하며 최근 인근 주민들과 함께 물건을 구입하는 '같이사요' 서비스를 론칭한 당근마켓은 "동네생활 게시판에 1인 가구나 육아 가정에서 함께 대량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 소분할 사람을 찾거나, 배달비나 최소주문금액이 부담되어 음식이나 택배를 같이 주문할 사람을 구하는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는 '쇼핑'도 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일회용품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쇼핑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은 다양한 이유로 쉽게 정착되지 못했다. 못난이 과일의 인기와 리퍼·이월상품의 재조명, 활발해진 중고거래 문화는 고물가 현상 속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 나온 씁쓸한 모습이지만, 정착된다면 여느 활동보다도 더욱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2일 (음 7월 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우물을 발견했으나 두레박이 없는 심정. **48년생** 쥐구멍에 볕드는 날이니 기다려보라. **60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 **72년생**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 마음. **84년생**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소: **37년생** 깊은 밤은 찬란한 새벽을 위한 준비. **49년생** 고맙다는 말이 듣기 좋다. **61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결국에 망신살을 부른다. **73년생** 그물도 치지 않고 고기 잡히기를 기다린다. **85년생** 작은 고추가 매우니 힘내도록.

호랑이: **38년생** 자식이 천재라도 꾸준한 노력은 필요하다. **50년생**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지 마라. **62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 시킨다. **74년생** 능력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라. **86년생** 바다로 나아가는 계기가 온다.

토끼: **39년생** 어려운 일이라도 다시 도전. **51년생** 원행을 금하고 건강을 살펴라. **63년생**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75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메모해두자. **87년생** 남의 탓하는 것은 자신의 모순(矛盾)아닐까.

용: **40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52년생** 상대의 실수를 포용하라. **64년생** 부지런히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자. **76년생**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 갑질 하지 마라. **88년생** 깔끔한 포기가 때로는 득이다.

뱀: **41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하니 몹시 고단하다. **53년생** 칭찬에 부화뇌동 하지 마라. **65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7년생** 무리한 산행이 허리의 통증을 유발. **89년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방심으로 잃는다.

말: **42년생** 서남쪽에서 귀인이 도움을 준다. **54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6년생** 초지일관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 **78년생** 팔짱 끼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90년생** 지식과 능력으로 일을 해낸다.

양: **43년생** 시련처럼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다. **55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67년생**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된다. **79년생**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아니다. **91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

원숭이: **44년생**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56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좋다. **68년생** 평소의 신용으로 귀한 정보를 얻는다. **80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히. **92년생**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다.

닭: **4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57년생** 내말을 콩으로 메주를 쓴 다해도 믿지 않는다. **69년생** 분수를 지키고 자제. **81년생** 상대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93년생** 불평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개: **46년생** 가족도 자주 만나야 돈독해 진다. **5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소화제를 준비. **70년생** 이성문제로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82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살자. **9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돼지: **47년생** 작은 것에도 신용을 우선시. **59년생** 파란색 숫자 9가 행운을. **71년생** 갈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83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95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김상회의 四季

좋은 돈 나쁜 돈

재물의 대명사로 대변되는 돈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다. 그 달콤한 돈이 보람되게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과 부패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돈은 인간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경제학에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직역하면 "나쁜 돈은 좋은 돈을 쫓아낸다." 정도가 될 것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은본위 제도의 화폐시장에서 만약 100원짜리 동전을 만들 때 은으로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은값이 오르게 되면 동전을 만들 때 은의 비율을 낮추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화 100원의 돈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거 은으로 만들었던 100원짜리는 녹여서 동이나 다른 금속을 더 섞어서 200원 300원으로 불릴 수도 있다. 과거의 순도 높은 은동전을 가진 사람은 당연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새 은동전은 사라지고 동이 섞인 동전만 유통되게 된다. 자연적으로 화폐시장과 경제상황은 인플레를 유발하며 혼란스러워진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의 경제학자였던 토마스 그레샴으로서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 실린 내용이라고 한다.

위에 은화의 얘기가 여왕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시행했던 방법이었다. 재산을 더욱 늘리고 싶었던 헨리 8세가 당시 영국에서 주조되고 있던 은화에 넣는 은의 함량을 줄여 돈의 개수를 늘린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결국 순도 높은 은화는 점점 사라지고 순도 낮은 나중에 만든 은화만 유통되다 보니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왜 이렇게 밖에 융통이 안 되냐는 여왕의 질문에 그리 답한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힘 문제출제: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3					5
					9			
	6							7
						4	2	
		5						9
				8		1		4
				1				
	3		5		4	6		

		2	7	6				
					3			
						3		9
9					6	5		
				5				
		8	4					1
3		9						
			9					
				7	4	2		

정답

3	9	6	8	4	5	2	7	1
1	8	4	3	2	7	9	6	5
2	5	7	1	6	9	3	4	8
9	6	2	4	3	8	5	1	7
8	7	3	9	5	1	4	2	6
4	1	5	2	7	6	8	3	9
6	2	9	7	8	3	1	5	4
5	4	8	6	1	2	7	9	3
7	3	1	5	9	4	6	8	2

4	3	2	7	6	9	1	5	8
5	9	7	1	8	3	4	2	6
8	6	1	2	4	5	3	7	9
9	2	3	8	1	6	5	4	7
6	1	4	3	5	7	9	8	2
7	5	8	4	9	2	6	3	1
3	4	9	6	2	8	7	1	5
2	7	5	9	3	1	8	6	4
1	8	6	5	7	4	2	9	3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9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09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